

##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 등에 대한 결의안

|          |    |
|----------|----|
| 의안<br>번호 | 22 |
|----------|----|

제안년월일 : 2002년 9월 25일

제안자 : 허정민 의원 외 9인

### 1. 주 문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에게 큰 희망을 주었으며, 그동안 일관된 햇볕정책은 이산가족과 국민들에게 평화통일의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후 이산가족 상봉, 경제교류, 문화교류 등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있으며, 이번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한의 공식적인 참가는 통일의 열매가 점점 더 무르익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미국은 보이지 않는 내정 간섭과 불공평한 한·미SOFA 협정으로 국민의 정서를 계속 자극하고 있기에 미국이 우방이라는 인식보다는 진정한 우방인가 의심하며 반미 감정의 정서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동등한 우방국가로서의 주권을 인정하고 한·미SOFA 협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 2. 제안이유

- 지난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희생당한 두 여중생의 사망사건은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으며, 100여일이 지난 지금도 진상조사는 물론 재판권마저 행사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에 울분을 토하며 불공평한 한·미SOFA 협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함.
- 미국은 조속히 재판권을 이양하고 책임자 처벌 및 공개사과를 하여야 할 것이며, 트레일러에 치인 박승주씨 사건을 은폐하고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일련의 작태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과 유가족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함.
- 위정자들은 당쟁을 조속히 중단하고 보국안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표하며 국가 주권확보에 동참할 것을 결의 하고자 함.

##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 등에 대한 결의안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던 날 경기도 양주에서는 꽃다운 여중생 두 명이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사건이 발생했다.

미2사단44공병대(캠프하우스)소속 미군장갑차(운전병 워커마크병장, 36세)에 압사당한 처참한 모습의 두여중생 심미선, 신호순(14세, 조양중2년) 사망사건은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사건발생일 100여일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진상조사마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판권마저 행사하지 못한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전 국민의 재판권 이양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및 공개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는 이번 파주에서 미군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한 박승주씨 사건마저 은폐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미군이 주둔한지 10만여건에 이르는 미군 범죄중 우리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이 2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권리마저 의심하기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등한 관계가 아닌 우방은 있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을 위한 국민의 열망에 부합하는 정부와 제반정치권의 노력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재판권을 확보하여 실행해야 하며 미국은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게 공개사과 하고 불평등협정의 대명사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즉각 개정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에 목포시의회 의원일동은 미군에 의해 희생된 심미선, 신호순 두 여중생과 박승주 형제의 영전에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그 유가족들에게 가슴으로부터 위로를 드리면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등 국가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 우 리 의 결 의

1. 주한 미군측은 두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미군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을 한국 사법부에 즉각 이양하라.
1. 이들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한미군 통수권자인 부시 미국대통령은 즉각 공개사과 하라.
1. 주한 미군측은 이번 사건 유가족과 사회단체대표 한국 수사기관 등과 공동진상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라.
1. 주한 미군측은 신효순, 심미선, 박승준씨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신속한 배상을 실시하라.
1.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하며 한국과 미국정부는 이를 위한 재 협상단을 조속히 구성하라.

2002년 9월 27일

목 포 시 의 회 의 원 일 동